

동북댐 증고 등을 통해 하루 30만톤 추가 용수 공급은 충분히 가능함

202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<동북댐 높여 반도체 물 공급? 지금 강수량
으로 역부족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□ 보도 내용

- 정부 “하루 30만t 물 더 확보” 계획이나, 동북천 일대(면적 189km²)인
섬진강 권역의 최근 10년(2015~2024년)간 연평균 강수량은 1,481.4mm임
- 동북댐 인근 담양댐의 평균 유출률 67%를 고려할 때 하루 공급 목표량
보다 5.6~10.2만톤 부족

□ 설명 내용

- 동북댐 유역(면적* 192.33km²)에서 관측된 최근 10년(2016~2025년) 간
연평균 강수량은 1,561mm**이며,
 - *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(WAMIS, 기후부)
 - ** 동북댐 유역 내 강우관측소(동북댐, 맹리)의 강우량을 평균한 값임(기사에서 제시한
1,481.4mm는 섬진강 유역 전체의 평균 강수량에 해당하는 수치임)
 - 동북댐의 유출률 실측값은 기사에서 제시한 인근 댐들의 유출률보다
훨씬 큰 73%이며, 이를 적용할 경우 동북댐으로 들어오는 물은 연간
2억 1,971만톤(하루 약 60만톤)에 달함
- 따라서, 기존 동북댐에서 광주 지역에 생공용수로 공급하던 27만톤/일을
제외하더라도 30만톤/일을 반도체 산단용수로 충분히 공급가능함

담당 부서	물관리정책실 수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4-201-7682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형 (044-201-7691)